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새 국면... '키맨' 신동국 "형제 지지"

(한양정밀 회장)

신동국 회장, 지분 12.15% 대주주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핵심 인물
연금·소액주주 표심에 좌우될 것

OCI그룹과의 통합 의지를 밝힌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4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중 한 명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에 변수가 발생했다.

신동국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가진 개인 최대주주고 (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현재 고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모친 송영숙 회장, 여동생 임주현 사장 등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을 신규 사내 이사로,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주주 제안안을 낸 상태다.

주주들의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경영권이 결정될 전망이다. 표 대결은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신규 이사 5명 선임 주주 제안'과 한미사이언스 측 '신규 이사 6명 선임안'을 놓고 진행된다. 양 측 후보자 총 11명 선임안을 일괄 상정, 다득표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신동국 회장의 공개 지지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보다 표 대결에서 유리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임 사장 형제 측 지분은 40.57%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홍보하는 이미지. /한미약품그룹

이른다. 임종윤·임종훈 사장 지분에 배우자, 자녀, 디엑스앤브이엑스, 신 회장 지분을 더한 것이다.

모녀 측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지분에 친족, 가현문화재단, 임성기 재단 등의 지분을 포함해 35%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임종윤·임종훈 사장의 지분은 각각 9.91%, 10.56%다. 송영숙 회장의 지분은 11.66%, 임주현 사장의 지분은 10.2%다. 앞서 업계에서는 양 측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신 회장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거론돼 왔다.

한편 신 회장의 형제 공개 지지에 대해 모녀 측은 우선 "OCI그룹과의 통합을 결정함에 있어 대주주 중 한 분인 신 회장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며 사과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그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OCI그룹과의 통합은 대주주 몇 명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상속세 재원 마련이 통합의 단초가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약 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평택 바이오플랜트, 파트너사와 함께 글로벌 3상을 진행하던 신약개발을 국내 신약으로만 한정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상황, 후보물질의 효능이 아닌 파트너사의 경영 조건에

의한 후보물질 반환 경험 등을 통합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업계는 이제 경영권 분쟁의 최종 항방은 7.6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인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인사 5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ESG 기준원은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5명 중 4명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하고 한미사이언스 측 6명 선임안에 불행사를 권고했다. 다만 한국ESG 기준원을 제외하나 나머지 업체는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미의 통합 계획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통합에 명분을 얻는다. 가처분 결과는 주총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라피 "자외선 차단·진정 등 한번에!"

'에이리페어 데일리 수딩 선크림'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셀라피'가 자외선 차단, 피부 장벽 강화, 진정 등을 한번에 관리하기 위한 제품을 선보인다.

셀라피는 '에이리페어 데일리 수딩 선크림'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하는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다. 기존 무기자차 제품들의 단점인 뻑뻑한 발림성과 백탁 현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셀라피는 고온 입자와 셀라피 독자 배합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SPF 50+와 PA++++ 자외선 차단 지수 검증도 완료했다.

무엇보다 '에이리페어 데일리 수딩 선크림'은 셀라피만의 에이리페어 더마 콤플렉스 성분을 통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조한 피부에 수분감을 선사한다.

셀라피에 따르면 더마코스메틱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셀라피 '에이리페어 데일리 수딩 선크림'. /에이블씨엔씨.

해당 제품 사용 직후 손상된 피부 장벽 개선율은 176%, 피부 진정율은 179% 증가했다. 또 24시간 동안 피부 속 수분이 64.9% 지속됐다.

아울러 병의원 전용 브랜드인 '닥터셀라피'의 'PN 레이저 수딩 선크림'도 전국 375개 병원 및 피부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셀라피는 자외선에 더욱 취약한 피부과 시술 및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저자극 해법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풀무원 뮤지엄김치관에서 김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관람객들이 김치 체험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풀무원

풀무원, 외국인들에 김장문화 알리기 앞장

'뮤지엄김치간' 外인 대상 프로그램

풀무원의 '뮤지엄김치간'이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치 체험 프로그램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뮤지엄김치간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뮤지엄김치간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만명 대비 약 40% 증가했다. 또, 2019년 전체 관람객의 30% 수준이던 외국인 관람객의 비중이 작년에는 45%까지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뮤지엄김치간은 올해 외국인 대상 유료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기존 '잇츠 김치', '김치 클래스 101' 2개의 프로그램을 4개의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잇츠 김치'는 '잇츠 김치_A', '잇츠 김치_B'로 개편했으며, '김치 클래스 101'은

'김치!_베이직', '김치!_마스터'로 세분화했다.

'잇츠 김치'는 15인 이상의 단체 외국인 관람객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유료 김치 체험 프로그램이다. '김치!_베이직'과 '김치!_마스터'는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4인 이상 개인 관람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뮤지엄김치간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무료 프로그램 '외국인 김치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최소 15명 이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만 참여 가능하다. 외국인 김치학교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1986년 중구 필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김치박물관이다. 2015년 4월 한류의 중심지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뮤지엄 김치간'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제약

'멜라토닝크림' 광고 공개 '기미·주근깨 고민은 끝'

동아제약은 지난 2021년 멜라토닝크림을 출시한 후 거뭇거뭇한 흔적, 착색, 기미, 주근깨 등이 고민인 20~4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색소침착 치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의약품으로서의 브랜드 입지 강화에 나선다.

동아제약은 오는 4월 1일부터 배우 박지현과 함께한 색소침착 치료제 '멜라토닝크림'의 신규 TV광고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고에서 배우 박지현은 '색소침착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깐 멜라토닝 약으로 치료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멜라토닝크림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해 색소침착 치료를 돕는다.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코스모코스, 미백기능 개발 앞장 홍삼서 찾은 비고시 원료 선택

홍삼 추출물서 '진세너지 B' 찾아
가장 우수한 멜라닌 억제 효과 보여

KT&G의 뷰티·생활건강 부문 계열사 코스모코스가 홍삼 추출물에 대한 자사 연구 성과와 전문성을 입증했다.

코스모코스는 홍삼에서 '진세너지 B'를 찾아내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고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세너지 B'는 홍삼을 가수분해해 얻은 진세노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백 원료다. 코스모코스에 따르면 해당 원료를 적용한 제형으로 진행된 인체적용시험에서 피부 미백 효과가 나타났다. 육안 평가 기준 8주 후, 기기 평가 기준 4주 후 대조군 대비 피부 밝기가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등을 동일한 용량으로 적용해 비교한 경우에도 '진세너지 B'가 가장 우수한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보였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은 피부 미백 기능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모코스는 향후 '진세너지 B'가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코스모코스는 홍삼 추출물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지속 연구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원료 진세너지 HG ▲비고시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 진세너지 A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아울러 코스모코스는 한국 토종 민트 '배초향'에서 찾은 피부 장벽 강화 원료 퍼플 민트, '제주밭벼누룩발효물'에서 찾은 생체 유사 활성 펩타이드 아스퍼 바이오펩 IV 등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이청하 기자